

지난 1년 반동안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전례없는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백신 보급이 원활하게 되어지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던 교회들도 이제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대면예배와 비대면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교회도 점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대면예배에 나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토록 어려운 시간을 지내오면서 잃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가 사람의 터치일 겁니다. 악수나 허그도 참 그리웁습니다. 사람의 터치를 통해서 전해지는 따뜻함 혹은 온기가 그리웁습니다. 오늘날에는 줌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줌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서 시편은 고대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드렸던 많은 기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5편은 포로기 이후에 믿음의 공동체가 힘겨워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를 연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과 같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당했던 어려움을 이제는 극복하고 무브온해야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확신의 말들이 담겨 있어서 귀합니다. 아직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변화가 시작된 것은 다름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조용할 겁니다.

나는 이미 주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답을 듣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8절과 9절은 믿음의 공동체에 찾아올 평화와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그 땅에 임하게 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와같은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해 노래하고 있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표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인애 즉 사랑과 진리는 사실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사랑은 자비와 용서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진리는 잘못된 것 혹은 불의를 정죄하고 심판하죠. 그런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게 되는 날을 꿈꾸고 있는거죠! 또한 의와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움은 잘못된 것과 죄를 찾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날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 가운데 클락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의로움과 평화는 어디에서 만났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다. 그러면, 언제 그 둘이 화해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갈보리 위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구요?"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헤세드]를 사랑, 은혜, 긍휼, 자비, 등으로 번역했는데, 이 단어의 본 뜻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가령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서로 친구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자꾸 넘어지고 절망하며 불평하고 투덜댁니다.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한 친구는 언제나 씩씩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풀고 넘어지면 일어납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두 친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이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친구가 혼자 갔으면 벌써 포기했을 길도 긍정적인 친구가 동행하니 목적지까지 다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절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댁니다. 원망이 많고 부정적입니다. 매사에 안된다고, 할 수 없다고, 나는 끝났다고 포기하려고 듭니다. 돌아가지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르시고 다독거리시며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지만 그곳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얹고 주님께시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부정적이며 불평하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선한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가 아니에요!

야곱이요, 이삭을 통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고는 그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부지런히 도망을 가게됩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분주하게 가는 도중에, 해가 저서 ‘여기서 쉬다가야겠다’하고는 그곳에서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눅게됩니다. 거기서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그냥 길을 가다 한 곳에 머물렀는데, 그 곳이 결국은 벳엘/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머무르던 그 곳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던 곳이었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것을 야곱이 이제서야 발견했다??는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곳이 곧 거룩한 곳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소명 받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이라는 돌산을 오르고 있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전에도 지나다니던 곳이었을 수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곳 예배당에서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길 원하는 장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다시금 발견하구요,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9:58,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를 쫓으라/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정도 안정되

었다 싶으면, 정착하고, 안주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 한 곳에 거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게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제자들은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것을 보게됩니다. 이 때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누가복음 9:33)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예수님의 세 제자들은 그 거룩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는 다시 산에서 내려오셔서 세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곳에서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때때로 지금 우리들이 있는 곳에, 그러한 상태에 머물고 싶어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다시 북적북적대고 때론 고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내 모세요. 아니 좀더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의 관심이 머물고 안주하는 것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

주신 삶의 자리로 이제 나아갑니다. 어쩌면 그곳이 힘들고 험한 광야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하신 예수님의 말씀 또한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